

2018 Autum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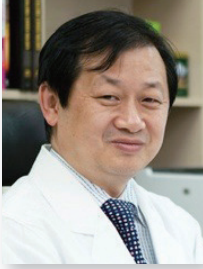
Vol. 98

희망미소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행동하는 이타심



신희영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지난 6월 태국 동굴에서 실종된 지 10일 만에 생사가 확인되어 어두운 동굴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12명의 소년과 코치의 모습이 전 세계 주요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비가 더 오면 동굴에 있는 소년들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하루빨리 구조되기를 기원했고 실종 17일 만에 극적으로 전원 구출되었습니다. 해피엔딩이 되기까지 침착하게 위험에 대처한 코치와 소년들 그리고 구조를 최우선으로 움직인 태국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 구조대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감동을 받은 것은 어려운 구조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동굴탐험가, 의료인, 구조전문가들의 행동하는 이타심이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있지 않을까요? 얼굴도 모르는 남을 위해 헌혈을 하고,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히크만 주머니를 직접 만들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돌잔치 대신 기부라는 의미 있는 선물을 전하고, 매월 월급에서 정기기부를 실천하는 분들 모두가 행동하는 이타심을 가진 분들입니다. 소아암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멋진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치료를 씩씩하게 받고 있는 우리 소아암 어린이들에게는 힘찬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세 아이의 엄마

세 아이의 엄마, 한 남자의 아내, 간호학과 학생, 세 역할을 하며 바쁘게 살던 어느 날, 큰딸 가인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아프기 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모성애가 강한 엄마인 줄 몰랐습니다. 학과 공부를 한다고 시험기간이 되면 친정엄마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아이들이 자는 새벽 시간에 도서관에 가서 아이들이 자는 늦은 밤이 되어 집에 왔던 저였답니다. 암으로 의심 되어 힘든 골수 검사를 하는 날에도 저는 유급을 피하기 위해 응급실에서 밤을 새고 다시 시험을 보기 위해 아픈 아이를 두고 학교로 와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 정도로 전 아이가 많이 아플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일 이틀 뒤 어학연수 일정으로 끊어 놔던 비행기 표를 급하게 취소하고 다니던 학교에 휴학을 신청하고 가인의 간호에 전념했습니다. 그래도 예후가 좋다는 교수님의 말씀에 위안을 삼고 있었지만 가인의 몸은 기대와 다르게 항암제에 대한 부작용으로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여 다른 약으로 바꿔야만 했고, 면역수치가 낮아 3일 정도 항생제를 쓰면 이길 수 있는 균을 이기지 못해 몸 구석구석 염증반응과 괴사가 일어나는 등 도미노처럼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내려 수술을 6번이나 해야 했고, 항암치료 할 때도 하지 않았던 중심정맥관을 항생제 투여를 위해 2번이나 삽입하여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할 때면 가슴이 하루에도, 아니 순간순간 수십 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이대로 떠나보내야 하는 건지, 정말 방법이 없는지,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생기는 것인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바짝 엎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든 하늘이 뜻하는 대로 할 테니 제발 가인을 데려가지 말아 달라고, 종교가 있지도 않은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가인도 우울증까지 와서 의료진과 대화도 거부하고 치료도 거부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달린 결과였을까요. 다행히 가인은 끝이 보이지 않던 기나긴 터널을 빠져나와 제 곁에 머물러 주었습니다. 아직 항암제와 수술 후유증으로 주 3회 재활치료를 다니고 방학 때는 3주간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아야할 정도로 몸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내 옆에서 숨을 쉬고, 함께 추억을 만들고,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음에 정말로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히 바라서도 안 되겠지만, 제가 소망하는 점이 있다면 힘든 치료를 마친 가인이가 공부보다 건강하게 사회에 잘 적응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자신이 가진 작은 것에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고 서로 함께 하는 사회에서 자기만족을 느끼고 행복해할 줄 아는 가인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백혈병 치료로 몸도 마음도 힘들었던 가인과 가족에게 따뜻한 말로 힘과 용기 주신 간호사분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교수님들, 고액치료로 인해 가정경제가 힘들지는 않는지 국가에서 보조는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주신 병원사회복지사님,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학교를 가려고 하지 않았던 가인을 학교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상담으로 도움을 주시고, 아이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항상 앞서 도움 주시고 싶어 매주 화요일 병동까지 찾아와 안내해 주시고 생일잔치를 열어 주셨던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선생님들, 2년 넘게 학교 수업을 받지 못해 많은 진도차이로 원적반에 바로 들어 갈 수 없어 일대일로 교과목을 다시 지도해 주시며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고 계시는 효천초등학교 학습도움실 선생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도움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가인도 저도 힘든 시기를 잘 버티고 지나온 것 같습니다. 가인도 2년 넘는 기간 동안 학교에 출석을 하지 못해 교과목도 뒤처지고 몸도 성치 않지만 우리 아이가 받은 도움과 사랑만큼, 아니 그보다 많은 것을 베풀 줄 알며 자신보다 약자를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가인으로 자라도록 잘 키우겠습니다.

* 금성림프모구백혈병을 진단받은 가인이는 2018년 5월 치료; 종결하였습니다. *

존재의 이유



박은영 (1998년생)

2002년 3월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진단

2004년 6월 치료종결

현재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재학 중

2002년, 어린 나이에 급성림프모구백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남해’라는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살이를 했습니다. 엄마는 낯선 곳에서 기약 없는 살림을 시작했고, 아빠는 병원비를 위해 새벽같이 배에 타셨고, 언니는 친구 집에 맡겨졌습니다. 그 후 병의 존재가 내 탓이 아님에도, 고생한 가족만 생각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저려서 죄인처럼 작아졌습니다. 자존감은 더욱 낮아졌고, 스스로를 미워했습니다. 혹시 과거의 저처럼, 자신이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환자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상처 받았던 아이가 존재의, 삶의 이유를 찾아간 이야기를 적어가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저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또 가지고 있는 당신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창 뛰어놀 나이에 어리광 참는 법을 배웠고, 자연스럽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건 어린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효도였으며, 가슴 한 편에 무겁게 자리 잡은 부모님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독한 항암치료는 시골 아이에게 지긋지긋한 약바리 근성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성적에 집착했던 것과는 달리, 중학교 내내 제 꿈은 ‘네일 아티스트’였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쌓아왔던 공부를 포기할 만큼의 꺾고,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또한 저를 위해 평생을 바치신 부모님 생각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티는 안내시지만 제가 공부를 조금 더 했으면 하고 바라실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까지 부모님께 빛을 갚아야하는 죄인이었으며, 공부는 마치 예정된 실패의 도피처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의 존재를 빛냈던, 그 꿈을 ‘나도 그렇게 원하지 않았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접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 무렵, 기적처럼 다시 꿈이 생겼습니다. 고향 집에서 1분 거리에 도서관, 책과 한적함이 있는 2층 열람실은 일종의 도피처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저 평소와 같이 잠깐 머물렀던 도서관에서 문득 여기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서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을 위해 사회적으로 더 인정받는 직업을 가져야할 것만 같았습니다. 어렵게 꺼낸 딸의 고민에 부모님은 애초부터 제 꿈과 행복을 지지해왔다는 말씀으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해서, 무작정 좋은 직업이 부모님의 행복이라 생각했던 어린 생각이 부끄러워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사건은 꿈을 좇아 주체적인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준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늘 제 존재를 소중히 여겨줬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 새벽녘, 간호학을 전공하는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가 백혈병에 대해서 조금 배웠는데 네가 건강하게 있어줘서 고맙네. 생각보다 위험한 병이라는 걸 배우면서 느꼈다.” 늘 짐처럼 무겁게 저를 누르던 그 병의 존재가 제 존재만으로 용서된다는, 건강해서 고맙다는 그 말이 심장을 콧콕 찔렀습니다.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새벽, 삶의 이유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또한 지난 날의 ‘네일 아티스트’라는 꿈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포기했던 그 꿈은 지금 뷰티학과에 진학 중인 친구가 펼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너의 어린 시절 꿈도, 현재도 충분히 멋진 삶이라고 이야기해줍니다. 그렇게 네일아트는 친구와 함께 하는 아름다운 취미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살자’라는 제 삶의 지향점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한 과거가 많으며, 그것 때문에 저를 사랑하는 만큼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학창 시절에 병을 앓았다면, 혹은 앓고 있다면, 상상만큼 멋진 사람이 되지 못해서 가슴 속에 큰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희망이자, 당신 자신의 희망입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밉다면 타인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당신만의 ‘꿈’을 찾기를 바랍니다. 물론 당장은 꿈이 없을 수도, 혹은 그 꿈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그리고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힘든 시간을 이겨냈고, 또 이겨낼 것이니까요. 더 악착같이 버텨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향해 걸어가기 바랍니다. 그 길은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또 다른 존재의 이유가 되니까요. 그들을 위해 살아갈 필요는 없지만, 그들에게 항상 감사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언제나 당신의 뜻을 지지해주는 든든한 당신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소아암가족 여러분들의 건강한 오늘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종근당홀딩스에서 사회공헌활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윤영 대리입니다.

종근당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의 인연은 201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헌혈증 기부로 시작된 만남은 어느덧 4년이 훌쩍 지났네요. 4년여 동안 헌혈증을 기부하고 소아암 쉼터에 노후 물품들을 교체하고, 임직원들이 손수 만든 희망키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오감만족 예술체험 프로그램’으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함께 대림미술관, 디뮤지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등에서 전시를 관람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같이 교감할 수 있는 매개체가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을 듣고 그림을 보고 만들기를 하며 마음의 치유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오감만족 예술체험을 통해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서 행복하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2011년부터 소아병동을 찾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오페라를 각색한 ‘찾아가는 키즈 오페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키즈오페라를 진행하면서 전국 44군데의 병원을 돌며 159회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아픈 아이들과 보호자분들이 투병의 고통과 병원생활의 힘겨움을 잠시나마 잊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썼습니다. 스스로 강해져야만 하는 어린 친구들에게 작은 기쁨을 주고 싶었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한없이 감사했습니다. 어린이 대상인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보다 더 밝게 웃고 박수치고 즐거워하시는 부모님들, 어린 친구들을 항상 지켜주는 등대와 같은 존재지만 수많은 아픔을 견뎌내야 하는 보호자분들께서 깔깔대며 웃는 아이를 보며 잠시나마 걱정을 내려놓는 시간을 드릴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굳센 부모님과 강인한 어린 친구들이 병마와 싸우는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빨리 퇴원해서 따뜻한 집밥을 먹을 수 있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길 희망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면역 수치와 싸우지 않아도 되는 날이 하루 빨리 와서 마음껏 뛰어다니고 세계곳곳을 누비며 멋진 삶을 살게 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의 행복한 웃음 소리가 넘쳐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소아암가족 여러분들의 건강한 오늘을 기원합니다.

* 종근당은 2014년부터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나눔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제 생일 선물은 마음으로만 받을 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는 새내기 의사 니새이입니다. 올해 초 면허를 따고 바로 인턴으로 취직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소아 응급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암 투병 중인 아기가 응급실에 내원해서 수액을 달고 잠든 모습, 뜯 눈으로 아이의 곁을 지키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맑은 두 눈으로 독한 항암제를 견뎌내는 아이들과 이를 지켜보아야 하는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그래서 사회인으로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생일을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기부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카카오 같이가치’의 온라인 모금함을 만들어, 제 생일 선물 대신 기부해 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생일을 맛있는 음식, 선물, 여행 등 나를 위한 소비로 끝내지 않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실제로 모금 당시 많은 사람이 ‘나도 한 번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제일 뿌듯했던 것 같아요.

한 달이라는 모금 기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기부 관련 글을 올리고, SNS로 홍보를 했습니다. 친한 친구들에게는 링크를 보내기도 했고, 부모님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의 도움으로 기적같이 목표 금액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생일 딱 하루가 아니라 모금을 진행하는 한 달 내내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내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았구나’하는 감사함도 느낄 수 있었고, 응원의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며 오히려 제가 힘을 받기도 했고, 연락이 끊겼던 선배와 연락이 닿기도 하고, 저에게 감사한 일이 있었다고 고백하신 분도 만났습니다. 오히려 제가 채워지는 시기여서 참 행복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생각하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아이들이 질병 때문에 너무 빨리 성숙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장난감을 얻고 싶어 떼를 쓰고, 반찬투정도 하고, 꿈을 꾸고... 매 순간을 질병과 싸우고 있는 아이들이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돕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이번 기회를 통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아암 어린이와 그 가족분들을 위해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 니새이 후원자는 ‘카카오 같이가치’를 통해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기금을 후원하였습니다. *

종근당 예술체험



지난 8월 24일, 서울나눔소아암센터에서는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과 예술의전당 박물관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프랑스 그림책 작가로 유명한 에르베 툴레 교육철학에 따라 물감과 붓을 가지고 자유롭게 색을 표현해봤습니다. 붓을 떨어뜨려보기도 하고, 손바닥으로 찍어보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과 자리를 옮겨가며 그림을 그리면서 창의성과 협동을 배웠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이 아이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보호자들은 사갈전을 관람하고 머그컵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머그컵의 그림에도 역시나 아이들의 이름과 얼굴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 본 행사는 종근당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가족힐링타임 야구관람

롯데카드의 초청으로 부산에서는 야구관람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노래 부르고 춤추며 응원하는 아이들 덕분에 만루 홈런에 승리까지 한 롯데사이언즈였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시간과 함께 응원도구와 멋진 야구모자 선물까지 받은 우리 친구들에게 잊지 못할 또 하나의 멋진 추억이 생겼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롯데카드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나눔소아암센터, 더 나아진 공간



서울나눔소아암센터는 1층 인테리어를 개선했습니다. 개소 때보다 이용인원이 늘어나 부족해진 보호자 쉬 공간을 확충하고, 아이들의 놀이공간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아이들은 넓어진 놀이공간에서 책도 꺼내어 보고, 장난감도 마음껏 펼쳐놓고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편안해진 소파에서는 잠깐씩 꿀잠도 잘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눔소아암센터는 나올 수 있다는 마음, 나아질 거라는 믿음으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집단 미술프로그램



서울나눔소아암센터에서는 청소년 환아가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집단 미술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 또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미술치료 작업을 통해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소년 환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걸음 더 성장했기를 바랍니다.

* 본 프로그램은 한국교직원공제회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완치자활동가와 함께하는 희망나들이

지난 6월, 완치자활동가와 함께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8명의 완치자활동가와 소아암 어린이들이 짝을 지어 국립어린이과학관에서 재밌고 신기한 체험을 하고, 창경궁·창덕궁도 관람했습니다. 즐거운 체험활동 후에는 창덕궁을 내려다보며 맛있는 저녁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짧은 하루였지만,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이 밝은 희망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청소년 진로체험 '꿈드림'



여름방학을 맞아 부산나눔소아암센터에서는 소아암 청소년들과 형제들이 함께 모여 꿈을 찾기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요리사, 아나운서, 포토그래퍼로 변신하여 자신의 적성과 꿈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꿈이 모두 이루어지길 응원합니다.

* 본 프로그램은 부산신항만주식회사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보물섬 & 키즈콘서트



지난 7월, 신나는 여름방학을 맞아 서울·경인 지역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이 재밌는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7월 25일, 명작동화 뮤지컬 '보물섬'을 관람하였습니다. 화려한 무대와 신나는 노래 속에 소중한 친구와 가족이 금은보화보다 더 값진 보물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7월 28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진행된 '키즈콘서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애니메이션과 친절한 설명으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악기들을 소개해주었고, 멋진 연주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소아암 어린이들이 악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본 행사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롯데카드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집단음악 프로그램

서울나눔소아암센터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드림하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음색의 악기 연주를 통해 서로의 소리를 경청하고,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며 성취감을 느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모기 이제 안녕



대구 우체국한사랑의집에서는 무더운 여름 밤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기를 퇴치하고자 환아가족들과 함께 대구한의약박물관에서 천연 모기기피제를 만들어보았습니다. 재료의 효능과 사용법을 듣고, 설명에 따라 정확한 비율에 맞춰 2달 동안 사용 가능한 천연모기기피제를 완성했습니다. 환아가족들이 직접 만든 기피제로 모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결정
환아

2018. 6. ~ 2018. 8.

이식비

고려은단

홍○근(만성육아중) 1,500만원

권세은 후원자

김○후(급성골수성백혈병) 1,000만원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

김○영(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식증) 1,500만원

이○은(악성림프종) 1,000만원

우체국공익재단 각 500만원

김○희(급성혼합형백혈병)

김○영(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식증)

김○나(연소형골수단구성백혈병)

김○울(급성림프모구백혈병)

김○후(급성골수성백혈병)

박○원(급성림프모구백혈병)

박○재(중증재생불량빈혈)

이○은(악성림프종)

이○영(재생불량빈혈)

이○수(만성육아중)

정○준(악성림프종)

홍○근(만성육아중)

익명 후원자

이○수(만성육아중) 500만원

한국도로공사

박○원(급성림프모구백혈병) 500만원

AJK 스타포인트

김○희(급성혼합형백혈병) 500만원

이○영(재생불량빈혈) 500만원

SK이노베이션 임직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균(중증재생불량빈혈) 1,000만원

김○나(연소형골수단구성백혈병) 1,000만원

김○울(급성림프모구백혈병) 1,000만원

박○재(중증재생불량빈혈) 1,500만원

정○희(급성골수성백혈병) 2,000만원

정○준(악성림프종) 1,500만원

재활치료비

대성종합건축사사무소

김○진(생식세포종) 500만원

메리츠화재

배○서(급성림프모구백혈병) 350만원

정○유(급성림프모구백혈병) 350만원

빗샘

이○주(원시신경외배엽종양) 1,000만원

차카게살자기금(이승환&팬)

장○균(급성전골수성백혈병) 800만원

한○정(수모세포종) 500만원

하이라이트 양요섭

박○민(망막모세포종) 100만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박○민(망막모세포종) 100만원

EXO 세훈

최○경(내배엽종양) 412만원

치료비

권세은 후원자

유○준(급성림프모구백혈병) 1,000만원

김건 가족 후원자

이○진(급성림프모구백혈병) 500만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오○경(급성림프모구백혈병) 2,542,360원

전○주(수모세포종) 800만원

정○준(악성림프종) 190만원

홍○현(급성골수성백혈병) 800만원

램리서치코리아

하○민(급성림프모구백혈병) 7,958,905원

롯데카드

김○욱(시신경교종) 500만원

손 ○(급성림프모구백혈병) 500만원

마마무 휴인

김○훈(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식증) 2,495,417원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

김○균(중증재생불량빈혈) 190만원

김○나(연소형골수단구성백혈병) 1,500만원

삼성전자로지텍

김○은(급성림프모구백혈병) 1,000만원

우체국공익재단 각 500만원

김○우(비호지킨림프종)

김○균(중증재생불량빈혈)

김○리(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식증)

신○훈(급성림프모구백혈병)

유○성(급성림프모구백혈병)

이○영(신경모세포종)

장○윗(뇌종양)

정○희(급성골수성백혈병)

정○백(수모세포종)

조○라(급성림프모구백혈병)

최○빈(악성림프종)

하○민(급성림프모구백혈병)

익명 후원자
노○인(급성림프모구백혈병) 1,500만원

익명 후원자 각 500만원
김○우(비호지킨림프종)
문○현(윌름스종양)
신○훈(급성림프모구백혈병)
정○준(악성림프종)
최○서(혈구탐색성림프조직구증식증)
한○우(만성육아종)

익명(정○보, 이○남) 후원자
조○라(급성림프모구백혈병) 1,000만원

한국도로공사
김○훈(혈구탐색성림프조직구증식증) 500만원
김○리(혈구탐색성림프조직구증식증) 300만원
이○영(신경모세포종) 300만원
장○윳(뇌종양) 300만원
정○희(급성골수성백혈병) 500만원
제○나(별야교세포종) 500만원
한○찬(망막모세포종) 800만원
한○우(만성육아종) 300만원

KB국민은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영(신경모세포종) 700만원

KB국민카드
이○산(재생불량빈혈) 500만원

SGI서울보증
송○호(급성림프모구백혈병) 800만원

SK이노베이션 임직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오○경(급성림프모구백혈병) 4,357,640원
하○민(급성림프모구백혈병) 1,000만원

간접치료비

일시 간접치료비

같이가치 with kakao&네티즌
박○영(급성림프모구백혈병) 500만원

삼성전자로지텍
김○은(급성림프모구백혈병) 500만원

익명 후원자 각 100만원
김○준(악성림프종)
김○현(급성림프모구백혈병)
서 ○(황문근육종)
이○호(수모세포종)
장○영(만성골수성백혈병)
최○원(급성림프모구백혈병)

이노션
김○균(중증재생불량빈혈) 100만원
김○후(급성골수성백혈병) 100만원

KB국민카드
이○산(재생불량빈혈) 500만원

정기 간접치료비(신규)

기업은행노동조합
강○텐(신경모세포종)
김○영(급성림프모구백혈병)
김○현(급성림프모구백혈병)
김○희(급성골수성백혈병)
이○진(상악세포종양)
우○연(악성황문양종양)
정○준(악성림프종)
조○아(급성림프모구백혈병)
하○은(배아세포종)
허○서(만성호산구성백혈병)

디시인사이드 유아인갤러리
이○제(급성림프모구백혈병)

케이엘넷
신○우(급성림프모구백혈병)

하늘타리
김○연(급성림프모구백혈병)

한전KPS
이○준(급성림프모구백혈병)

한전KPS고리2사업처
김○혁(비호지킨림프종)

한코교역
김○경(급성골수성백혈병)
이○준(신경모세포종)

현대엘리베이터 사회봉사단
윤○진(급성림프모구백혈병)

익명 후원자
김○리(수모세포종)
김○연(급성림프모구백혈병)
김○락(신경모세포종)
김○훈(비호지킨림프종)
김○호(호지킨림프종)
배○민(원시신경외배엽종양)
이○희(급성림프모구백혈병)
정○아(급성림프모구백혈병)
최○아(급성골수성백혈병)
홍○미(수모세포종)

가발

SGI서울보증
고○연(황문근육종)
박○인(비호지킨림프종)
신○빈(생식세포종양)
안○진(황문근육종)
이○빈(황문근육종)
이○안(급성림프모구백혈병)
제○나(뇌종양)
조○원(랑게르한스조직구증식증)
최○원(급성림프모구백혈병)
하○은(배아세포종)

>>> KCLF



2018. 6. ~ 2018. 8.

소아암 어린이들의 든든한 후원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기후원

강예승 강인애 강주리 강준영 고성윤 구민숙 권은혜 권혜빈 김가영 김관순 김나연 김다정 김문영 김민 김민경 김성배 김세은 김영광 김영인 김월희 김유리 김윤경 김정민 김중기 김준혁 김태희 김혜원 김홍미 김희정 김희진 남현정 도혜미 모수정 문상현 문승후 문예선 박경미 박나래 박상용 박서준 박성빈 박성하 박태희 박현정 방필호 배진섭 배호진 서려주 서명원 서지훈 서현정 서혜원 소진희 손예지 손정우 신규철 신민호 신정훈 안수민 안철중 안혜강 우혜경 유장현 유정민 윤동민 윤주영 이규현 이근원 이상철 이상현 이선희 이세빈 이소라 이소영 이승현 이영훈 이유정 이윤지 이준화 이한송 장기욱 장동승 장성한 장종원 장택상 전현지 정세명 정요셉 정지연 정하영 정환수 조세홍 조한일 조형우 지윤미 최문수 최수인 최원제 최은우 최준호 하여철 한선우 한선희 황보창민 황인정 황재민 (주)인코원 플러스경제연구소

일시후원

강규환 강정숙 고건하 곽태환 구운하 구자룡 권민주 권지형 김도희 김명숙 김부옥 김성희 김슬기 김슬기2 김영규 김예지 김예진 김정일 김채환 김철수 김태석 김현정 김희령 노영승 박수빈 박연우 박은혜 박지현 박한민 박휘 백미경 백승경 신현준 안철홍 안형선 엄서현(이세미) 오정우 우재원 원정연 유수현 윤준우 윤한석 윤희백 이도영 이미은 이설아 이영인 이재한 이정인 이지한 이철우 이향화 이혁준 이현주 임나래 임연자 전영심 전형진 정연태 정혜원 제윤재 조수진 조유빈 조윤슬 조주연 차민나 천승우 최은은 최승제 표은미 하승연 한샘 허지현 황길항 황여준 황인호 경남오소리 고림고등학교1학년11반 김치과의원 김포사우고2-1 삼척행우회 소네스 진진자라 파랑모기부 행주초등학교 5학년 INTOYOU

스타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

개인팬(B.A.P 대현) 개인팬(배우 김윤식) 개인팬(배우 김윤식) 개인팬(서영호&정재현) 개인팬(여자친구 엄지) 개인팬(배우 이석준) 개인팬(펜타곤 이던) 개인팬(하성운) 뉴이스트갤러리(뉴이스트) 디시인사이드 김세정 갤러리(김세정) 디시인사이드 박현진 갤러리(박현진) 메이저세븐(정세운) 미드나잇선(황인호) 박손(에이핑크 오하영) 배우 박보검과 함께 걷는 사람들(배우 박보검) 보검복지부(배우 박보검) 블링크(블랙핑크) 상쾌한아침(모모랜드 주이) 원앤원(젝스키스 은지원) 유명이나르샤(위키미키 최유정) 정용화 중국팬클럽(정용화) 팬클럽 아미(방탄소년단) 해리오스(슈퍼주니어D&E) 해외팬(김민학) 해외팬(위키미키) 행복전도사 정세운(정세운) @xxxxmybbch(B.A.P) 6월의 꽃(배우 박보검) BABY(B.A.P 대현) bbhooonie&Pinkbithoon(워너원 박지훈) BLACKPINK_4EVER(블랙핑크) Blue Dawn(정연태) CHINA NAJAEEMIN BAR(NCT 재민) GARNET(사무엘) INTO YOU(SF9 인성) MAYBLUE(김재환) Snowflake(온앤오프 심재영) YOO&I(공유)

물품후원

김철웅 빵 롯데카드 야구관람티켓 박지윤 양파 애터미 생활용품 정지원 빵 제주신라호텔 프로그램비 종근당 공기청정기,청소기 코스테글로리 화장품세트 한상수 단호박 호수외나라수오미 물티슈

후원계좌	국민은행 : 001-01-2353-890	신한은행 : 140-000-762725	예금주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농협 : 029-01-176943	우리은행 : 112-04-112571	
	우체국 : 012989-01-003327	하나은행 : 144-121835-00105	

KCLF 희망소식

희망장학금 전달식



8월 21일, 서울에 사는 소아암 완치자 희망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재단은 항상 멋진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완치자들을 응원합니다.

가고 있는 완치자들을 응원합니다.

* 본 프로그램은 안코교육, 해피빈에서 후원합니다. *

소아암 어린이 가족캠프



9월 11일-12일, 소아암 어린이 가족캠프가 에버랜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에서 기다려왔던 즐겁고 소중한 시간을 보낸 45가족 153명의 가족들은 마음 속에 따뜻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우체국공익재단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소아암 완치자 그룹 '소네스'



지난 7월, 자기성장프로젝트 소네스 팀은 소아암 어린이가 그린 민들레그림을 티셔츠로 제작, 판매하여 마련된 수익금을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려된 수익금을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삼성전자로지텍



삼성전자로지텍 임직원은 지난 7월 소아암 어린이가 치료비를 전달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지속된 삼성전

자로지텍 임직원의 나눔을 통해 23명의 소아암 어린이가 치료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호수의나라수오미



호수의나라수오미는 '러브 투게더 캠페인'을 통해 물티슈와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기금전달

김영민, 고려은단, 기업은행노동조합, 다비오, 더그로브, 목고박치과의원, 메리츠화재, 익명(정○보, 이○남), 현대엘리베이터 사회봉사단

전인CM건축사사무소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인 전인CM은 2012년부터 매년 소아암 어린이를 돕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임직원 급여 끝전, 바자회 모금을 통해 모은 후원금과 헌혈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포시에스



포시에스는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포시에스는 2015년부터 매년 창립기념일을 맞아 소아암 어린이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우 공유 공식 팬클럽 YOO&I



기부에 이어 다시 한 번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었습니다.

배우 공유 공식 팬클럽 'YOO&I'에서 공유 마흔 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이식비를 전달했습니다. 작년 생일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6월 소아암 어린이 후원캠페인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스튜디오 콘크리트



2015년부터 매년 바자회를 통해 소아암 어린이를 돕고 있는 스튜디오 콘크리트에서도 올해도 바자회 수익금을 기부했습니다. 후원금은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로 지원됩니다.

동하야힘내



2018년 재단의 어린이 홍보대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동하가 백혈병 재발로 힘든 치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 동하를 위해 SNS를 통해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응원메세지를 직접 동하에게 전달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 덕분에 힘든 치료 중에도 동하는 함박 웃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함께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동하의 완치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동하야힘내

2018 따뜻해 마스크 캠페인 시작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약해진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손바느질로 직접 만든 마스크를 선물하는 '따뜻해 마스크' 캠페인이 9월 3일 시작됩니다. 올 겨울 감기 바이러스로부터 소아암 어린이를 지켜줄 '따뜻해 마스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후원회원 웹서비스 업그레이드



더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후원회원 웹서비스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모바일 최적화, 출력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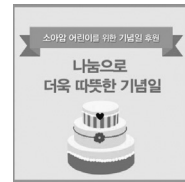
후원안내

▶ 정기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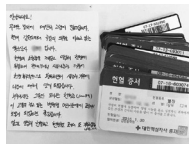
한 달에 한번, 나눔의 기쁨을 느껴보세요! 2~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치료 받아야 하는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정기후원으로 함께해주세요.

▶ 기념일 기부

다가올 여러분의 생일을 더욱 특별하고 의미 있게 맞이하고 싶다면,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그 기쁨을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생일, 자녀의 백일·돌, 결혼, 취업 등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찾아오지 않는 기념일에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기부로 기념일의 특별한 의미를 더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념일이 될 거예요.



▶ 헌혈증 기증



소아암 치료비 감면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응원과 격려도 함께 전할 수 있는 방법! 집안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헌혈증이 있다면 수혈이 많이 필요한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서 기증해주세요.

▶ 신청 및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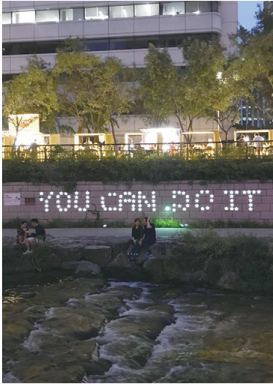
· 홈페이지 www.kclf.org · 전화 02-766-7672(내선2번)

소아암, 함께 이겨내자!

9월 15일 토요일 저녁, 청계천에서는 소아암 인식개선 캠페인 '희망별빛'이 진행되었습니다. 청계폭포부터 광고 너머까지 청계천 수변에는 소아암과 맞서 싸우고 있는 어린이들의 희망 별과 시민들의 응원메세지가 전시되었습니다. 소아암과 싸우면서 용기를 잃지 않는 어린이와 가족들, 그리고 함께해준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저희 아이도 소아암 환자였습니다. 지금을 치료를 끝내고 언제 아팠냐는듯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 소아암 환자 그리고 보호자분들 항상 힘내세요 -us****
- ★ 저도 소아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지루하고 힘들지만 같이 이겨내요!! -이주찬
- ★ 힘든 시간이겠지만 그 시간의 끝에는 항상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화이팅!!! -안병바비양
- ★ 소중한 우리아이들 하나하나 모두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있기를 온마음 모아 바래요♥ -뚜뚜맘
- ★ 간절히 원하면 꼭 이루어 진대요~포기하지말고 마법의 주문을 외워요~" 꼭 건강해 져서 내 꿈을 펼칠거야" 하고 말이죠~늘 기도 할게요~^^ -세요각시
- ★ I Love you I wish you better than today -최은원
- ★ 나를 거라고 믿으면 이루어질 거예요~ 그 믿음이 이루어지길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늘 함께하겠습니다~ -서령맘
- ★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라는 걸 한순간도 잊지 말길! -주아맘





윤준수 _ I Have A Dream (소아암 어린이 꿈 그림 · 글 공모전 수상작)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꿈꾸고 있는 가수가 되어
멋진 무대에 서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마음을 담아 힘껏 노래를 부르는 꿈이요.

발행인 | 오연천 편집인 | 서선원 발행처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주소 | 02880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5길 9-14 전화 | 02)766-7671(대) 팩스 | 02)766-7674
www.kclf.org cancer@kclf.org